

전통 매듭의 조형미와 현대적 활용실태

김보영* · 금기숙**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강사*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 Aesthetics and Modern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Knots

Bo-Young Kim* · Key-Sook Geum**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0. 1. 8, 심사(수정)일: 2010. 11. 22, 게재확정일: 2010. 11. 25)

ABSTRACT

A Korean knot is one of the ornamental elements that our ancestors used intimately in their daily lives, and the diverse forms and structural features of the Korean knot have sufficient creative and aesthetic value for it to be recognized as one of beautiful products that was relished by individuals of the times. Starting from two strands, Korean knots make unique forms as they are overlapped or plaited, crossing each other in many ways. The forms of Korean knots were given names such as "*nabi maedeup*"(butterfly knots) and "*gukwa maedeup*" (chrysanthemum knots), in reference to things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at were perceived as being similar in their appearance. It is considered that with their unique structure, such Korean knots may provide a good motif for creative design. As well, it is believed that combining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n knots with a contemporary sensibility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truly forward-looking desig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and analyz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s of Korean knots, with an eye to their use in future design. In addition, it aims to help to put such historical knotting practices into practical and functional use in the future, through a study of previous uses of historical knotting practices with a modern sensibility. It is thus expected that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the inheriting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and ultimately to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n design in the world.

Key words: auspicious(길상), balance(균형), formative aesthetics(조형미), harmony(조화), Korean knots(매듭), moderation(절제)

I. 서론

21세기에 들어 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문화·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글로벌사회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은 각자가 지녀온 전통성이나 독창성을 방치하며, 여러 부분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창성이나 경쟁력은 다른 나라나 민족과 구별되는 전통적인 문화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문화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조형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창출어람의 조형창작품을 이룩해 온 것이다.¹⁾ 우리의 전통 매듭도 그 유래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인의 자발적인 수용과 활용을 통해 한국적인 문화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고유의 것이 세계 속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보편성을 지닌 디자인의 가치를 찾아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 나아가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매듭은 우리조상들이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활용되어 온 장식 요소의 하나로 그 다양한 형태와 구조적인 특징은 당시대인들이 음미했던 미적 산물의 하나로 그 독창성과 심미성이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매듭은 두 가닥의 끈이 서로 엇갈리며 겹쳐지거나 엮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독특한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낸다. 매듭의 창출된 모양은 주변에 있는 유사한 대상들의 이름을 빌어서 '나비매듭', '국화매듭'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의 매듭은 우리나라의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모티프가 될 것이라 사료되며, 매듭이 지닌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킬 때,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

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듭에 대한 조형적인 고찰은 미래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듭의 조형적인 특성과 조형미를 고찰하여 해석해 보는 작업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매듭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대한 고찰을 병행하여, 향후 매듭이 현대적인 조형감각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세계 속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의 위상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방법은 매듭의 기원과 등장,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매듭에 관한 전문서적 및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하였으며, 매듭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사례는 각종 문헌들과 전시회 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발췌하였다. 연구 범위는 매듭 사용의 흔적이 나타난 상고시대부터 매듭의 활용이 절정을 이루었던 조선시대까지이다. 또한 매듭은 끈목, 매듭, 술의 세 가지 요소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 완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가 되는 매듭뿐만 아니라 끈목, 술까지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II. 역사적 고찰

1. 매듭의 기원과 등장

1) 상고시대

매듭은 기원전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농경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²⁾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짐승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묶거나 매는 작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실용적인 생활 수단에 이용하거나, 꼬아서 엮는 방법으로 미적인 표현 욕구를 나타내기도 했다. 돌도끼나 들칼의 구멍에 끈을 꿰어 사용했던 흔적에서는 수렵 및 식생활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된 생활용 매듭을 볼 수 있다.³⁾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승문토기(繩文土器)에 줄무늬 또는 노끈을 감아 사용했던 흔적이 나타난 것을 보아 매듭의 시원(始原)을 추측할 수 있

다.4) 또한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품 중에 흙으로 빚어 만든 방추차(紡錘車)와 뼈로 만든 골각기(骨角器)가 발굴되고 있는데 특히 방추차는 실을 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오늘날 끈을 짜기 위해서 실을 꼬는 비룻과 비슷한 것이다.5)

이처럼 상고시대에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 자연 발생하였고 여기에 기능과 미적 감각이 더해짐에 따라, 초기의 끈은 점차 오래 사용하기 위해 또는 장식을 위해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닥을 합하여 꼬거나 짜서 사용하는 이른바 끈목으로 발전하여 매듭의 기초적인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6)

2) 삼국시대

삼국시대 매듭의 사례는 풍속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고구려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묘주<그림 1>7)를 표현한 인물을 보면, 연꽃으로 장식된 탐개(椶蓋) 속에 탐개를 장식하고 있는 방장(房帳)을 묶는 장식으로 사용된 것이 매듭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삼국사기』의 복식조에는 삼국의 복식에서 모두 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듭이 당시 의복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8) 고구려 무용총<그림 2>9)에 보이는 무용수들이 착용한 허리띠 또한 옆으로 혹은 뒤로 묶어서 늘어뜨려 장식적인 용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매듭이 활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의 한시대의 유물에서 이미 매듭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한국의 삼국시대에도 매듭이 실용적으로 혹은 장식적으로 애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매듭의 장식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가 매듭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10) 매듭의 사용이 일상화되었을 것으로 유추될 수 있는 사례는 고려청자의 장식문양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청자삼감복사음각모란문매병(靑磁象嵌嵌紗陰刻牡丹文梅瓶)」<그림 3>11) 위의 네 모서리에 매듭과 술이 장식된 사각보를 얹은 듯한 무늬를 시문한 것을 통해, 당시대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었던 매듭의 장식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12)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매듭이 남아있는 유물은 아미타불 복장(腹藏) 직물 중 하나로 1302년의 조성연도가 있는 「토끼무늬 귀주머니」<그림 4>이다. 주머니의 끈은 검은색 끈 끈을 써서 안경, 생쪽, 안경, 의도래 매듭 순으로 매듭을 지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본형 매듭의 유래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13)

4)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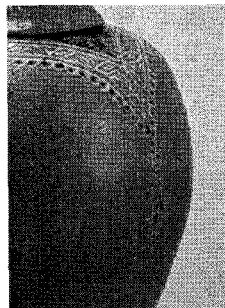
매듭은 조선시대에 다양한 유물을 남기고 있어서 매듭 활용의 절정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까지는 향, 소, 부곡에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



<그림 1> 안악 3호분 묘주 인물도, 한국 전통 매듭, 2004, p. 7.



<그림 2> 고구려 무용총 고분벽화 중 일부, 매듭장, 1997, p. 22.



<그림 3> 12세기 고려청자삼감복사음각모란문매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http://www.buan21.com>



<그림 4> 직금능 토끼무늬 귀주머니, 고려 1302년, 온양박물관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 16.

어 수공업품을 생산하였으나, 매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끈목을 짜거나 매듭을 엮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장인이 늘어났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궁중에 다회장(多繪匠)을 전속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궁에서 사용하는 향낭을 만들기 위해 궁녀들은 시간이 나면 다회를 쳤다는 기록이 있다.¹⁴⁾ 다회를 제작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작품으로는 조선 말기에 김준근의 '끈목치는 모양, <그림 5>'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매듭에 쓰이는 끈목을 만드는 과정과 제작 도구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왼쪽 장면에는 짜여진 다회끈이 천장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⁵⁾

매듭의 착용은 풍속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 <그림 6>'¹⁶⁾에서 여인의 옷차림을 보면 가슴에 삼천주 노리개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 노리개는 3개의 커다란 구슬, 구슬 사이의 작은 매듭, 그리고 낙지발술로 구성되어 있다. 김홍도의 '운상신선도, <그림 7>'¹⁷⁾에서도 신선이 타고 있는 소의 뒤에 붙이고 가는 깃대 위에는 장식물과 그 장식물을 치장하는 매듭과 술이 하나씩 길게 두 개는 짧게 장식되어 있다.

2. 매듭의 구조와 종류

매듭이란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끈이나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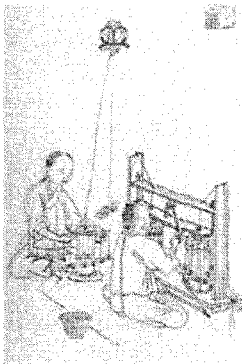
을 사용해서 맺고, 엮고, 짜는 섬유제작 자재를 총칭하는 것이다.¹⁸⁾ 하나의 끈을 반복해서 두 가닥이 되게 겹치고 그 두 가닥을 대칭이 되도록 서로 엮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연이어 나가면 매듭이 된다.¹⁹⁾

매듭은 끈목(다회), 매듭, 술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합쳐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유소나 노리개가 완성되는 것이다.

1) 끈목(다회)

매듭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바로 '끈목'의 선택에 있다. 끈목이란 여러 올의 실을 꼬거나 짜서 만드는 끈을 일컫는데, 전통매듭에 쓰이는 끈목은 실을 합사하여 두 가닥 혹은 세 가닥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끈과 네 가닥 이상의 여러 가닥으로 만든 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²⁰⁾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짜는 끈을 '다회(多繪)', '다회(多繪)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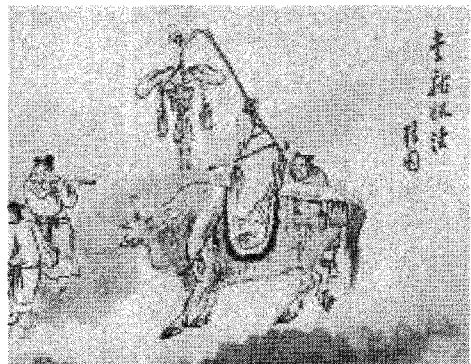
다회는 동다회와 광다회로 나눌 수 있으며, 동다회는 원다회라고도 하며 끈목의 둘레가 둥글며 4사·8사 등이 있다. 주로 노리개·주머니끈·각종 유소를 만드는데 쓰인다. 광다회는 폭이 넓고 납작한 평직의 끈으로 허리띠로 많이 쓰였고, 방울술 노리개·선초·안경집 장식 등에 쓰였다.²¹⁾



<그림 5> 김준근의 끈목치는 모양, 조선 19세기, 대영박물관, 한국 전통 매듭, 2004, p. 19.



<그림 6> 신윤복의 미인도(美人圖), 간송미술관 소장, 매듭, 2001, p. 15.



<그림 7> 김홍도의 운상신선도(雲上神仙圖) 중 일부, 호암미술관 소장
<http://www.danwon.org/main.htm>

2) 매듭

매듭의 종류는 다양하며, 우리나라 매듭은 그 기본형이 38종류에 이른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듭의 명칭은 모두가 조선시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많이 사용되는 매듭은 도래매듭, 귀도래매듭, 연봉매듭, 생쪽매듭, 장고매듭, 가지방석매듭, 매미매듭, 잠자리매듭, 국화매듭, 나비매듭, 가락지매듭, 난간매듭이 있으며, 가지방석매듭은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매듭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끈목의 한 끝을 매어 매듭을 지을 때, 끈목과 끈목을 이을 때, 끈목을 다른 물체에 붙잡아 매거나 그 물체를 늘어뜨릴 때, 끈목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해 그 중간에 동여 땔 때, 어떤 물건을 묶을 때, 매듭의 구성으로 문양을 만들어 장식용으로 쓸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²²⁾

3) 술

다화와 매듭의 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술의 역할이다. 다화, 매듭, 술의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합쳐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유소나 노리개가 완성된다. 술의 종류에는 세조대·노리개·선추 등과 각종 유소에 널리 쓰이는 딸기술, 노리개·선추·주머니 끈·귀걸이장식 등에 쓰이는 봉술, 악기·족자·가마·번 등에 장식되는 대형 유소의 끝이나 호패술에 쓰이는 방망이술, 남자용 선추나 안경집·어린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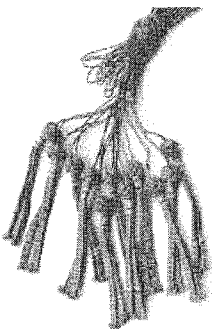
차는 작고 가벼운 노리개에 많이 달리는 방울술, 그 밖에도 낙지발술, 끈술, 후수술, 금전지술, 잔술 등이 있다.

3. 매듭의 용도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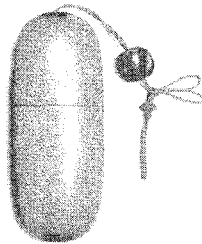
1) 남성용 매듭

조선 시대 선비들이 남긴 문집과 시문 등을 살펴보면 좋은 경관을 찾아다니며 시(詩), 서(書)를 논하고 금(琴), 주(酒)와 더불어 노니는 것을 소위 '풍류'라 하여 생활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류는 삶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멋스러움을 즐길 줄 아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반적인 생활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풍류와 멋을 누리는 데에는 몇 가지 몸치장을 필요로 하였다. 갓, 허리띠, 선추<그림 8>²³⁾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장신구를 착용함으로써 조선시대 선비들은 나름의 멋과 개성을 표출하거나 발산하는 즐거움을 누렸다.²⁴⁾

남성용품에서 매듭은 갓끈, 호패, 향낭, 안경집<그림 9>²⁵⁾, 주머니<그림 10>, 화살통, 선추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남성용 장신구 착용에 엄격한 유교질서와 신분과 지위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용 장신구에는 과다한 장식이나 배열을 삼갔으며 단아한 매듭과 술 장식으로 마무리하여 전체적인 세련미와 남성적인 멋을 한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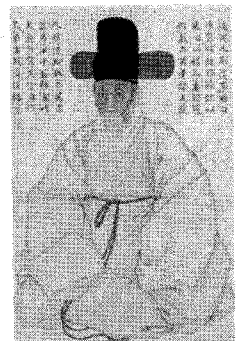
<그림 8> 선추술, 창덕궁 소장, *朝鮮服飾美術*, 1994, p. 139.



<그림 9> 안경집,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리 옷과 장신구*, 2003, p. 166.



<그림 10> 귀주머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리 옷과 장신구*, 2003, p. 162.



<그림 11> 강세황 자화상, 국립중앙박물관 기탁, *한국 전통 매듭*, 2004, p. 158.

높였다.²⁶⁾ 모든 의장은 자연의 섭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데, 특히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삼아 여기에 적절한 변화를 주고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강세황의 초상화<그림 11>에는 도포 위에 붉은 색 세조대를 매고 있는데, 이는 정3품 이상의 당상관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조대에도 품계에 따라 왕과 왕세자는 금사로 된 띠를, 당상관은 홍색·분홍색·자주색을, 정3품 이하 당하관은 청색과 녹색을, 상중(喪中)에 있는 자는 백색의 세조대를 사용하였다.²⁷⁾

2) 여성용 매듭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던 봉건시대에 조선의 여인들은 집안 운영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여성들의 역할에는 길상의 꿈이 현실에서 성취되도록 기원하는 행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정안수 떠놓고 소원을 빌거나, 굿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기원 행위를 통해 심리적 위안과 만족을 구하였다. 또한 여인들은 수를 놓거나 매듭을 이용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서 자신의 꿈을 형상화시키기도 하였다.

매듭은 주로 여성의 몸치장용으로 착용했던 노리개<그림 12>²⁸⁾, 주머니<그림 13>, 별전, 쓰개<그림 14>, 귀걸이 등에 사용되었고, 여인의 정조와 정절을 의미하는 장도<그림 15>²⁹⁾에도 매듭 장식을 하였다. 평소 여인은 남편을 위하여 몸을 가꾸고, 계절이나

의복의 종류에 따라 노리개, 향주머니, 귀걸이 등과 같은 장신구들에 매듭 장식을 달아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한 번 옥죄면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 매듭은 이와 같이 한번 맺어진 부부의 인연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장식품에 달리는 매듭이나 장신구로 여인들의 신분과 지위가 가시화되었다.³⁰⁾ 이처럼 미적 표현이 강조된 장신구들도 거의 실용성과 관련이 있으며, 남성의 장신구에 비해 여성의 장신구가 보다 많은 우의의 상징성을 갖는데 이는 여성들이 개인의 의지보다는 우연성이나 주술적인 능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³¹⁾

3) 생활용품

생활용품에 사용된 매듭에는 버선, 주머니, 발걸이, 방장걸이, 문방가구, 선추, 고비<그림 18>³²⁾ 등이 있다. <그림 16>의 타래버선은 연봉매듭을 맺고 끈목을 늘어뜨린 다음 끈목의 끝을 금실이나 배색이 잘되는 색실로 감은 방울술을 단 것이다. 주머니는 붓을 넣어두는 필낭, 도장을 넣어두는 도장주머니, 액을 넣어두는 약을 넣어두는 약낭, 부적을 넣어두는 부적낭, 생명을 상징하는 수저를 넣어두는 수저집<그림 17>³³⁾ 등이 그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며, 이런 주머니에는 끈으로 입구를 막고 매듭장식을 지어 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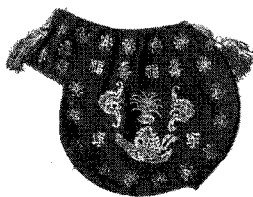
이러한 생활용품이나 장식품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소속된 사회의 일정한 규범 안에서 이루어졌고 당시의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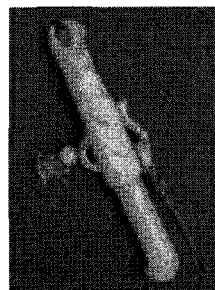
<그림 12> 동자삼작노리개, *朝鮮朝末期王室服飾*, 1987, p.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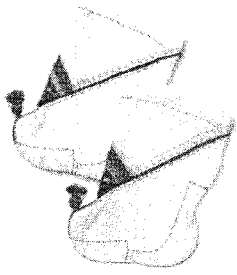
<그림 13> 진주낭, *공중유물전시관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 224.



<그림 14> 조바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우리 옷과 장신구*, 2003,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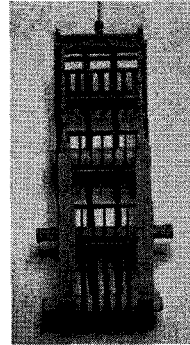
<그림 15> 옥장도(玉粧刀), *동아대박물관 소장, 조선여인의 미*, 2005, p.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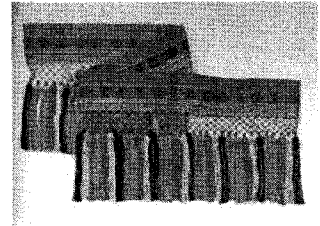
〈그림 16〉 타래버선,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우리 옷과 장신구, 2003, p. 296.



〈그림 17〉 궁중용 수저집, 우리 규방 문화, 2006, p. 115.



〈그림 18〉 매듭 장식 고비,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2009, p. 39.



〈그림 19〉 가마 술, 한국 전통 매듭, 2004, p. 133.

적인 철학과 종교와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생활용품은 길치례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의례에 이르기까지 품위와 격식을 지키려 한 우리 선조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³⁴⁾

또한 가마 술은 가마에 다는 술 장식물의 하나로, 매듭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식물은 다회, 매듭, 술로 구성된 유소와 가마 술이 있다. 〈그림 19〉의 가마 술은 먼저 망사 매듭을 맺고 그 아래에 색을 맞추어 가락지매듭을 둘씩 끼우고 딸기술을 달아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리는 흔들림에 의해 리듬과 울동감이 느껴진다. 이 가마 술은 궁중 유물로 전한다.

4) 악기에 사용된 매듭

옛 가무악에 쓰였던 오방색 유소는 단순히 악기를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시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옛 성현들이 추구하였던 유교적 이상사회, 즉 덕치주의의 표상이자 임금의 권위와 성덕을 기리고 하가 되는 의미를 상징한다. 어보에 달린 붉은 술이 조선시대 절대 권력, 즉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악기에 달았던 오방색 유소의 내면에는 음양오행 사상에 의한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상징성이 담겨 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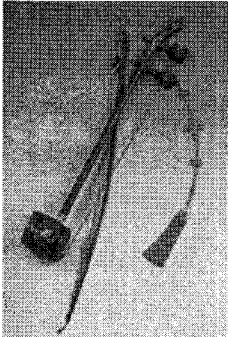
악기장식에 사용된 매듭에는 제례악, 연향악의 궁중의식이나 민간 무속음악 등 가장 폭넓게 사용된

해금(奚琴)〈그림 20〉, 6개에서 9개의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박(拍)〈그림 21〉, 아악부에 속하는 관악기인 소(簫), 취타나 당악 계통의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인 운라(雲羅), 향발, 나각 등이 있으며, 감개매듭, 난간매듭, 생쪽매듭, 도래매듭, 가지방석매듭, 장구매듭 등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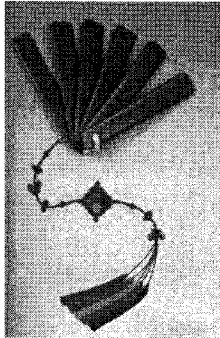
5) 종교의식에 사용된 매듭

종교의식에도 매듭이 사용되었는데, 삼국시대 전래되어온 불교의 교리를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한 미술품과 공예품인 불화, 불자(拂子), 복장(腹藏) 유물, 연, 번(幡) 등에도 매듭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불교 미술품은 당시대인들의 염원과 갈망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조형물들은 실용적인 경우나 장식적인 경우나 대부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이때 매듭은 울동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조형물들의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한다. 또한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염원과 함께 그들의 미적 감각이 충만된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요소들도 많이 나타난다.³⁶⁾

불자는 일반적으로 불자의 유소 장식은 부단한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고승의 격과 덕망에 어울리는 단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산대사 초상, 〈그림 22〉에서 보이는 불자는 위쪽에 용머리 모양을 장식적으로 하며 분홍색 유소와 흰색 말총을 묶어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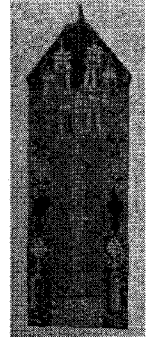
〈그림 20〉해금(奚琴),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 85.



〈그림 21〉박(拍),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 80.



〈그림 22〉불자(拂子), 서산대사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p. 96-97.



〈그림 23〉인로왕 보살반, 우리 규방 문화, 2006,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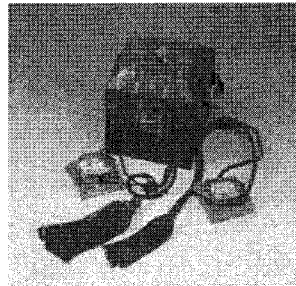
리웠으며, 손잡이 아래쪽에는 금속 고리에 붉은색 술을 달았다. 「인로왕보살반」(그림 23)³⁷⁾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인로왕보살을 상징하는 번으로, 유소는 오방색 동다회로 석씨, 난간 매듭을 두른 네별감개, 도래, 삼정자, 가지방석 매듭 등으로 장식하였고, 오방색 방방이술을 달아 화려함을 더했다.

6) 기타

그 외에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인 의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보(御寶), 진영(眞影), 도검(刀劍), 사명기, 등채 등에서도 아름다운 매듭과 술 장식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의장물 뿐만 아니라 정전(正殿)과 같은 웅장한 궁궐의 위엄 있는 건축 공간도 국가와 왕권을, 철저한 상하계급의 위계 질서를 상징한다. 이러한 공간은 절대 권력과 권위를 받쳐주며 힘을 뺏어 낼 수 있는 상징적인 권력의 확장이 된다. 이 안에서 권력자들은 권위를 드러내는 행사를 주최하고 아울러 의장물들이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³⁸⁾

어보(그림 24)는 왕의 권위와 국권,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장(印章), 즉 국새이다. 거북이나 용의 형태의 어보의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방망이술이 달린 붉은 끈을 매어 장식한다. 진영은 오늘날의 초상화로, 유소를 진영 좌우 양옆으로 늘어뜨림으로써 진영의 격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홍선대원군 이하응 초상 진영(그림 25)³⁹⁾은 석씨매듭으로 장식하였고,

양쪽에 유소를 하나씩 달지 않고 전체를 길게 연결하여 족자걸이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그림 24〉영조 금보·정조 금보,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한국 전통 매듭, 2004, p. 54.



〈그림 25〉이하응 초상 진영(眞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아름다운 우리 매듭, 2008, p. 114.

Ⅲ. 매듭의 조형미

우리 전통 매듭이 지니는 조형적 요소와 아름다움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미적 특징이 있다. 선이 모여 면이 되고, 면이 모여 입체가 되는 조형 원리와 마찬가지로, 매듭도 끈목이 모여 평면 매듭이 되고, 이러한 평면적인 매듭이 모여 입체적인 매듭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듭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 결과, 매듭

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되었다. 첫째, 대칭과 반복이 주는 균형의 아름다움. 둘째, 규칙과 질서를 반영한 절제의 아름다움. 셋째, 대조와 대비에 의한 조화의 아름다움. 넷째, 대상과 형상을 통한 길상의 의미이다.

1. 균형의 미

매듭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의 형태를 이루며 단독 무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듭의 종류에 따라 좌우·상하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는 매듭도 있으며, 이러한 매듭의 형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안정되고 편안한 균형의미를 보여준다.

생쪽매듭, 삼정자매듭, 장구매듭, 매화매듭 등 대부분의 매듭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좌우·상하 대칭 구조를 가지는 매듭은 세벌감개매듭, 네벌감개매듭, 다섯벌감개매듭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는 매듭과 십일고매듭, 석씨매듭, 사색판매듭, 난간매듭 등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는 매듭이 주를 이룬다.

여러 가지 종류의 매듭으로 구성된 유소는 윗부분은 작은 매듭으로, 아래로 갈수록 매듭의 크기가 커지도록 디자인되어 안정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구성으로는 크기가 큰 매듭이 유소의 중심에, 그 매듭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매듭이 대칭을 이루기도 한다. 박, 소, 해금, 운라 등의 악기에 사용된 유소의 매듭의 예를 보면, 모두 가운데의 큰 매듭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을 이루는 작은 매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물의 초상화인 진영이나 궁중악기인 운라, 종교의식에 사용된 번 등에서 균형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위쪽의 양 끝에 똑같은 형태의 유소를 매달아 늘어뜨려 균형감을 살렸다는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2. 절제의 미

전통 매듭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독특한 미적 특징 중 하나는 절제된 미의 표현이다. 매듭의 형태는 하나의 끈을 사용하여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창조해 내며, 그 구성 방식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최소한의 색과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다양한 문양과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남성용 장신구 착용에 엄격한 유교질서와 신분직위에 따른 여러 제약과 절제와 검소함을 생활이념으로 삼고 있는 선비정신으로 인해 남성용 장신구에는 과다한 장식을 삼가고 단아한 매듭과 술 장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색상에 있어서도 질서와 절제의미를 보여주는데, 단색이나 음양오행에 입각한 청(靑), 적(赤), 황(黃)의 삼원색, 또는 청(靑), 백(白), 적(赤), 흑(黑), 황(黃)의 오방색만을 사용하여 지나친 색의 혼합이나 난해한 색의 구성은 자제하였다.

이러한 절제된 미는 매듭의 균일한 리듬의 반복에 의해서도 표출된다. 같은 형태의 매듭이나 단독 무늬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매듭의 크기가 점차 커지거나 작아지도록 구성하여 리듬감과 울동감을 주었으며,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를 피하였다.

이처럼 매듭은 형태와 구조적인 면에서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미적 특징을 가지며, 대체로 단독무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술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나친 단조로움은 피하는 절제의미를 보여준다.

3. 조화의 미

매듭에서 대조와 대비는 매듭과 끈목, 그리고 술의 조합에서 보이는 직선과 곡선, 색상, 비례, 매듭과 짝을 이루는 의복이나 소지품들과의 관계 등 상호간의 조화를 통해 표현되는미를 말한다.

매듭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는 매듭이 묶이고 풀어지는 대비에서 나타난다. 또한 매듭의 여성적인 곡선미와 끈목의 남성적인 직선미의 대비에서도 표현되는데, 이러한 대비를 유연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술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전통 매듭의 색상은 주로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적(赤), 청(靑), 황(黃)의 삼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동양인에게 3이라는 숫자를 길상의 수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색상의 조화가 가장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삼작노리개의 예를 보면, 각각의 노리개마다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색의 조화를 의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색으로 구성된 매듭은 매듭이 달리는 주체와 어울리는 유사한 계열의 색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보색을 사용하여 색의 대비 효과를 주기도 하였다. 그 밖에 오방색은 종교 의식에 사용된 번(幡)의 유소, 가마술, 여성용 노리개의 술 부분에 장식하여 화려함을 강조하는데 활용되었다.

대조와 대비는 매듭의 비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매듭과 매듭간의 비례, 매듭과 술의 비례, 매듭과 끈목의 굵기와의 비례, 매듭과 매듭 사이의 간격간의 비례, 매듭의 크기와 유소의 길이와의 비례, 매듭과 장신구의 비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길고 짧은 것의 대비, 크고 작은 것의 대비 등이 매우 다채로우며 조화롭다.

4. 길상의 미

전통 매듭이 상징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의 연, 장수, 다복, 다산 등의 길상(吉祥)의 의미가 있다. 매듭의 의미를 보면 예부터 우정과 인연을 할 때는 고름을 맺었다 하고 산모의 산고를 돕는 삼신승매듭 등이 있었다.⁴⁰⁾ 약기에 달린 오색유소는 옛 성현들이 추구하던 유교적 이상사회, 즉 덕치주의의 표상이자 임금의 권위와 성덕을 기리고 하나가 되는 의미를 상징한다.⁴¹⁾

매화매듭, 매미매듭, 잠자리매듭, 연봉매듭은 청렴과 순결을 의미하여 매미매듭, 나비매듭, 연봉매듭은 장수를, 그리고 가지방석매듭, 엽전매듭, 연봉매듭, 두벌감개매듭은 다복을 상징하였다. 또한 나비매듭과 연봉매듭은 다산을 상징하고 병아리매듭은 수난을 이기는 의미, 사색판매듭은 회로애락, 생동심결매듭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의미하였다. 특히 연봉매듭은 청렴, 장수, 다복, 다산 등의 상징 외에도 풍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의미를 내포한 매듭이다. 사자(死者)와 관련된 매듭도 있는데, 혼백매듭은 죽은 후에 혼이 자유롭게 떠돌라는 의미로 탈상할 때 태우며, 사동심결 매듭은 죽은 사람의 유품을 태울 때 함께 태우는 매듭이다.⁴²⁾

다양한 매듭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노리개를 빼놓을 수 없다. 노리개는 금, 은,

보석들의 장식이 상징하는 의미 외에도 매듭의 문양이나 색상, 크기, 술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박쥐 형상의 삼작노리개에서 삼작은 하늘, 땅, 인간을 상징하는데,⁴³⁾ 주체가 되는 박쥐 형상은 복(福)을 의미하는 길복문(吉福紋)으로 사용되며 주체 밑의 연꽃 봉오리로 맺은 매듭과 술은 장수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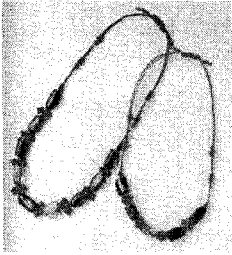
IV. 매듭의 현대적 활용실태

최근에는 전통문화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매듭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용 액세서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생활용품, 다양한 문화상품으로의 개발, 포장제품의 포장끈으로 활용, 패션용품에 사용하는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더구나 매듭의 조형미와 순수미술의 소재로 활용되는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더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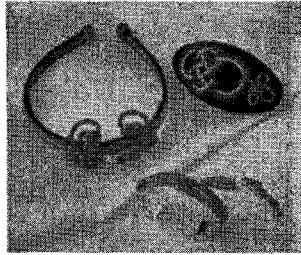
1. 장신구(액세서리)

주로 여성용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의 장신구와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헤어 액세서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남성용 커피스 버튼으로 활용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소재나 디테일 면에서 캐주얼하게 활용된 목걸이, 헤어핀이나 헤어밴드 등은 색상이 다채롭고 값비싸지 않아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림 26〉은 무형문화재 22호인 매듭장 김희진이 매듭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작품으로, 왼쪽 목걸이는 도래, 생쪽, 삼정자 매듭을, 오른쪽 목걸이는 삼정자 매듭 대신 국화매듭을 맺었다. 매듭 사이사이에는 청색, 갈색, 백색의 장방형 구슬을 꿰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림 27〉⁴⁵⁾은 한국매듭연구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한국매듭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머리장식, 핀, 팔찌를 매듭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28〉⁴⁶⁾의 머리핀은 가운데의 생쪽매듭을 기준으로 양옆에는 금색의 가락지매듭으로 장식을 하고, 또 그 옆에는



〈그림 26〉 유리 목걸이,
한국 전통 매듭,
2004, p.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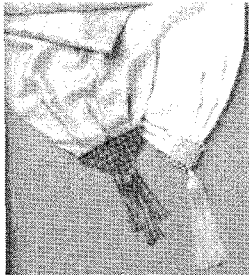
〈그림 27〉 머리장식, 핀,
팔찌, 김미리 작,
한국매듭전, 1999,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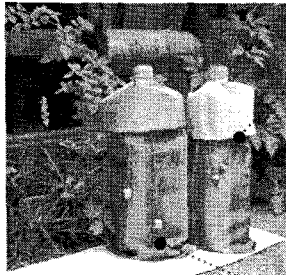
〈그림 28〉 생쪽 머리핀,
<http://www.woorikyub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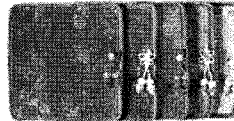
〈그림 29〉 콩매듭
커프스, <http://www.cuffs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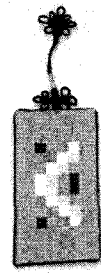
〈그림 30〉 술, 김희진
1996년 작, 한국 전통 매듭,
2004, p.275.



〈그림 31〉 술 주머니
<http://www.woorikyubang.co.kr>



〈그림 32〉 컵받침
<http://www.newshin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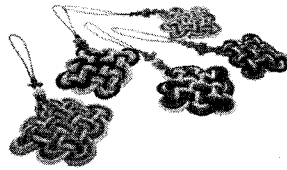


〈그림 33〉 조각보 책갈피
<http://www.madamyo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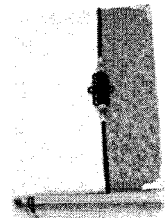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실을 감아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그림 29〉⁴⁷⁾는 남성용 커프스 버튼으로 활용된 사례이다.

2. 생활용품

일상생활에서 매듭은 생활한복의 단추나 술 장식 부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반진고리·컵받침·냅킨 홀더 등의 생활소품, 화장품이나 도장 등을 넣을 수 있는 각종 주머니,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실내를 연출하기 위한 발걸이·방장걸이·편지함 등의 인테리어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듭은 휴대폰줄, 책갈피, 열쇠고리, 수첩 등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일상용품이나 문구류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화시대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매듭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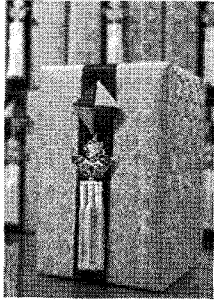
〈그림 34〉 국화매듭 휴대폰줄
<http://www.woorikyub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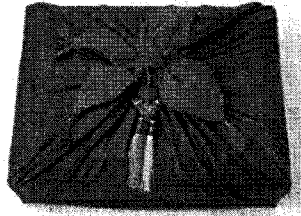
〈그림 35〉 국화매듭 수첩
<http://www.madamyoon.co.kr>

〈그림 30〉은 매듭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으로 술의 부드러운 질감과 단아한 술 장식이 우아하게 어울린다. 네벌감개 매듭과 석씨매듭, 그리고 술 장식에 약간씩 변화를 주었다. 〈그림 31〉⁴⁸⁾은 전통주나 와인 등을 넣을 수 있는 술 주머니이며, 〈그림 32〉⁴⁹⁾는 자수를 놓은 사각형의 컵받침에 매듭을 장식하였다.

특히 휴대폰 줄이나 책갈피 등에서 매듭은 북주머



〈그림 36〉 포장지와 매듭 장식
http://wrapschool.com



〈그림 37〉 포장용 보자기와 매듭장식
http://blog.naver.com/ajew/



〈그림 38〉 찻주전자 덮개,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2009, p. 239.

나나 모시주머니, 동물 인형 등의 형태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⁵⁰⁾의 조각보 책갈피는 국화매듭으로 장식을 더해주었고, 〈그림 34〉의 휴대폰 줄도 모두 국화매듭을 활용한 것으로 휴대폰 줄마다 각각 세 가지의 색상의 끈목을 사용하여 변화를 준 것이 이채롭다. 〈그림 35〉는 투 톤의 실크원단에 국화매듭과 생쪽매듭으로 장식한 고급스러운 수첩이다.

4. 포장제품

매듭장식은 포장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장용기, 한지 등의 포장지, 보자기 등으로 포장한 후 그와 어울리는 매듭과 술로 장식하여 마무리한다(그림 36)⁵¹⁾(그림 37)⁵²⁾. 이 때 매듭은 포장지와 어울리는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배색을 하거나 보색으로 배색을 하여 액센트를 주기도 한다. 또한 찻주전자나 용기 등의 덮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림 38〉⁵³⁾의 찻주전자 덮개에 사용된 매듭은 연봉매듭으로 은은한 파스텔 톤의 배색이 조화롭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백화점의 포장 코너에서 종종 볼 수 있으며, 결혼식을 위한 예물, 예단, 한복 등을 포장한 보자기 위에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5. 패션디자인의 인스피레이션

매듭과 술의 조형성과 다채로운 색상 및 배색은 패션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작품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008년 펜디 코리아(Fendi Korea)에서는 펜디의 바게트백의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10인의 디자이너와 아티스트에게 새롭게 디자인을 하도록 하고 10 코르소 코모 서울(10 Corso Como Seoul)에서 전시를 하였는데, 한복디자이너 김혜순은 매듭을 이용한 한국적인 감각을 가미한 펜디백(그림 39)⁵⁴⁾을 선보여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새롭게 재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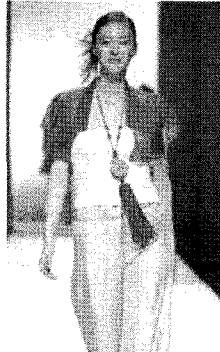
또한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영희, 이상봉 등 국내 디자이너와 동양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로 작품 세계를 펼치는 영국 출신 존 갈리아노(John Galiano)의 작품에서도 매듭이 활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영희는 2007년 S/S 서울 컬렉션에서 전통적인 매듭과 술을 활용한 목걸이를 선보였는데, 터키 블루색의 짧은 재킷과 매듭의 술의 색상이 매우 멋스럽다(그림 40)⁵⁵⁾. 〈그림 41〉은 이상봉이 2009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발표한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블랙 의상에 한국의 상징인 호랑이를 연상케 하는 감옷과 매듭의 술을 매달아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존 갈리아노는 이번 컬렉션에서도 동양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선보였는데, 국화매듭을 응용한 매듭이 단추로 활용되었다(그림 42)⁵⁶⁾.

6. 미술작품의 모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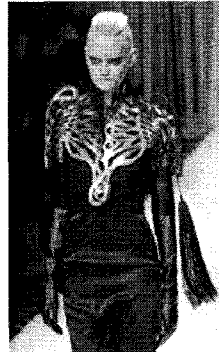
최근에는 전통예술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국제매듭전시회》를 포함하여 여러 공예전시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우리의 매듭도 미



〈그림 39〉 김혜순, 펜디백, 2008, 10
꼬르소 꼬모 서울,
<http://blog.daum.net/film-art>



〈그림 40〉 이영희,
2007 S/S 서울 컬렉션,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41〉 이상봉,
2009 F/W 컬렉션,
<http://imagesearc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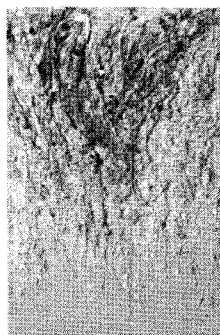
〈그림 42〉 John
Galiano, 2009 FW,
www.style.com

술작품의 모티프로 활용하여 훌륭한 작품을 창조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면적인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입체적인 형태의 공예품을 창조해 낼 수도 있다. 〈그림 43〉⁵⁷⁾은 매듭만으로도 하나의 멋진 작품이 탄생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김혜순의 「은총」〈그림 44〉⁵⁸⁾은 전통매듭의 아름다움을 화려한 자수와 함께 구성한 평면작품으로,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하여 우리에게 한층 더 편안하게 다가온다.



〈그림 43〉 2004 <<서울
국제매듭전시회>>,
<http://www.visitseoul.net/visit2006>



〈그림 44〉 2008
<<전통매듭의 아름다움>>
특별전, 「은총」, 김혜순 작,
문화경제신문

V. 맺음말

1. 결론 및 제언

복식은 식생활이나 주생활과 함께 기층문화의 핵심요소로 인간의 생활 문화 중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복식은 그 민족의 의식 구조와 미적 감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⁹⁾ 따라서 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미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길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찾아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다.

복식 문화의 한 요소인 매듭 또한 한국의 모든 문화가 그러하듯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스며 전해 왔다. 우리나라 매듭의 기원은 기원전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농경시대로부터 시작되며, 조선시대에는 매듭과 끈목, 술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그 용도가 많았는데, 약기, 번(幡), 연(輦), 기(旗), 방장(房帳), 영정(影幀), 상여의 장엄 장식으로, 노리개, 주머니, 허리끈 등 각종 복식용으로 생활 전반에 쓰였다. 궁중에서는 수십 명의 다회장과 매듭장이 있었다고 전해올 만큼 매듭이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했다.⁶⁰⁾ 그러나 조선 말기 이후 일제 강점기에 많은 전통 문화가 훼손되었고 근대화의 물결로 매듭의 용도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더불어 기능보유자들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전통 매듭의 맥을 이어오던 정연수 선생이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의 부인 최은순 여사와 김희진 선생에 의해 오늘날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과거 유물의 복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대승적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듭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은 매듭의 전통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복식 문화의 하나인 전통 매듭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외적인 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조형정신과 미적 가치를 의식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통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조형미를 간직한 전통 매듭이 우리의 생활과 디자인에 적용되고 활용된 사례를 통해, 매듭의 대칭과 반복, 규칙과 질서, 대조와 대비, 대상과 형상을 바탕으로 선비의 정신과 종교의 염원을 담아 균형, 절제, 조화, 길상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매듭에 표출된 우리의 조형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활용에 대한 미래 방향을 장신구로서 활용, 생활용품으로 활용, 문화상품으로 활용, 포장제품으로 활용, 패션디자인의 인스퍼레이션으로 활용, 미술작품의 모티브로 활용 등의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고유의 조형미를 '디자인의 세계화'라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적 디자인을 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전통매듭은 과거와 오늘은 잇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맺고 풀어지는 우리 고유의 디자인 미학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매듭에서 찾은 조형미가 다양한 접근과 시도로 우리나라 디자인과 예술분야에서 활용 및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현대적 활용에 대한 제안

최근 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매듭을 복원하여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매듭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이나 의상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매듭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을 문화상품으로 발전 및 계승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듭은 우리 고유의 조형미를 대표하며 우리만의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모티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미적 요소와 정신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켜 발전시키면 디자인, 건축, 조형예술, 패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디자인 자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 속의 디자인 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 결과, 과거에 매듭은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장식적인 요소가 부각되었다면,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문화상품, 포장제품 등 더욱 다양한 아이টে으로 시대의 상황에 맞게 활용됨에 따라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므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용품으로는 반전고리, 켓 받침 등 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며, 문화상품으로는 누구나 손쉽게 휴대하고 선물할 수 있는 휴대폰 줄, 열쇠고리, 책갈피, 수첩 등 그 형태와 아이디어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하다. 또한 포장제품으로 활용된 매듭도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는데, 명절이나 결혼 등 특별한 날 이외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장신구로 활용된 매듭의 경우는 주로 값싼 여자 어린이용 액세서리가 주를 이루어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매듭에 사용되는 소재가 현대적인 의상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매듭이 단독 아이টে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으나 현대인들의 신체에 직접 착용한다거나 장식을 하기에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소재의 한계성 및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전통적인 매듭의 형태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노력들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 소재나 품질을 고급화시킨다든지, 현대 의상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매듭의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매듭의 표면적인 형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까지 매듭과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자 책임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안취준 (2008). *한국 미술의 미*. 파주: 효형출판, p. 49.
- 2) 김은영 (1989). *우리나라 매듭*. 서울: 진화, p. 1.
- 3)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1997). *매듭장*. 서울: 국립문화재 연구소, p. 7.
- 4) 김은영. *앞의 책*, p. 3.
- 5) 김병미·오진 (2002). 한국전통매듭에 관한 고찰. *과학교육연구*, 33, p. 57.
- 6) 임영주 (2002). *한국 전통매듭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
- 7) 김희진 (2004). *한국 전통 매듭*.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 7.
- 8)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앞의 책*, p. 8.
- 9) *위의 책*, p. 22.
- 10) 차명순 (2002). *전통매듭과 현대의 만남*. 서울: 느림, p. 14.
- 11)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ww.buan21.com>
- 12) 김은영·김혜순 (2001). *매듭*. 서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 6.
- 13) 김희진. *앞의 책*, p. 16.
- 14) 차명순. *앞의 책*, pp. 17-18.
- 15) 김희진. *앞의 책*, pp. 19-20.
- 16) 김은영, 김혜순. *앞의 책*, p. 15.
- 17)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ww.danwon.org/main.htm>
- 18) 임상일, 안명숙 (2003). *전통매듭*. 서울: 교문사, p. 10.
- 19) 김병미, 오진. *앞의 책*, p. 57.
- 20) 김희진. *앞의 책*, p. 31.
- 21)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앞의 책*, pp. 19-20.
- 22) 김지영, 김문진 (2001). *규방공예*. 서울: 21세기북스, p. 47.
- 23) 금기숙 (1994).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p. 139.
- 24) 김희진. *앞의 책*, p. 144.
- 25)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 57.
- 26) *위의 책*, p. 145.
- 27) 김희진. *앞의 책*, p. 158.
- 28) 김영숙 (1987). *朝鮮朝末期王室服飾*.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p. 170.
- 29) 부산박물관 (2005). *조선여인의 미*. 부산: 부산박물관, p. 117.
- 30) 김희진. *앞의 책*, p. 187.
- 31) 금기숙. *앞의 책*, p. 141.
- 32) 김은영 (2009).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매듭 만들기*. 서울: 미진사, p. 39.
- 33) 허동화 (2006). *우리 규방 문화*. 서울: 현암사, p. 115.
- 34) 김희진. *앞의 책*, p. 113.
- 35) *위의 책*, pp. 72-73.
- 36) *위의 책*, p. 93.
- 37) 허동화. *앞의 책*, p. 231.
- 38) 김희진. *앞의 책*, pp. 48-49.
- 39) 김희진 (2008). *아름다운 우리 매듭*. 서울: 그라픽네트, p. 114.
- 40) 이영순 (1973). *매듭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41) 김희진. *앞의 책*, p. 73.
- 42) 목진애 (2006). *한국 매듭의 원류와 디자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 43) 신동숙 (1984). *노리개 考-삼작노리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 44) 금기숙. *앞의 책*, pp. 141-142.
- 45) 한국매듭연구회 (1999). *한국매듭전*. 서울: 한국매듭연구회, p. 122.
- 46) 자료검색일 2009. 4. 12, 자료출처 <http://www.woorikyubang.co.kr>
- 47) 자료검색일 2009. 4. 12, 자료출처 <http://www.cuffs mall.co.kr>
- 48)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ww.woorikyubang.co.kr>
- 49)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ww.newshinsa.com>
- 50)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ww.madamyoon.co.kr>
- 51)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wrapschool.com>
- 52)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ajew>
- 53) 김은영. *앞의 책*, p. 239.
- 54)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blog.daum.net/film-art>
- 55) 자료검색일 2009. 4. 23,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 56) 자료검색일 2009. 4. 12, 자료출처 www.style.com
- 57) 자료검색일 2009. 4. 12, 자료출처 <http://www.visitseoul.net/visit2006>
- 58) 문화경제신문. 자료검색일 2009. 4. 12, 자료출처 http://e-cen.co.kr/board/bbs/board.php?bo_table=03_6&wr_id=33
- 59) 문화관광부 (2001).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 7.
- 60) 김희진. *앞의 책*, p. 1.